

원저

솨岩鍼法の 火熱에 대한 연구

사공희찬 · 김병수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Abstract

Study on the Principles of Prescriptions of Fire and Heat of Saam Acupuncture

Sagong Hee-chan, Kim Byung-soo and Kang Jung-soo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Saam acupuncture has evident principles of prescription based on acupuncture tonification and purgation of Nan-gyeong but many prescriptions of Saam acupuncture are not typical patterns. This paper studies principles of prescriptions of the king fire and the premier fire.

Methods : Through investigation of many medical documents concerning king fire and the premier fire, the author explained of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principle of king and the premier fire, also explained of interacting mechanism through five element. And The theoretical authorities of analysis are Nan-gyeong, works of Joo dan-gye and Li dong-won.

Results & Conclusion : 1. The sufficiency and the control of the water is the key to treat the disease by fire. Considering the attack and the treatment of disease, heart and liver give rise to fire in its early stage and kidney and lung are the key to treatment.

2. Consequently the pathology of the disease from fire is corresponding to the theory- Yang Sufficient, Yin Deficient- of Joo dan-gye. It seems that the theory of Joo dan-gye influenced on the medical theory of Saam Acupuncture.

3. On that account I believe that the study of medical theories of the Geum and Won Dynasty that various medical theories had appeared is very available for Saam Acupuncture.

At present global warming is accelerating be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 damage of fire to human body will be more and more severe and extensive. Because in the future medical plants will not be fre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upuncture will be very confidential treatment.

· 접수 : 2005년 7월 6일 · 수정 : 2005년 7월 23일 · 채택 : 2005년 7월 23일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Tel. 042-280-2617 E-mail : omdkjs@dju.ac.kr

Key words : Saam acupuncture, king fire, premier fire, Joo Dan-gye, Li Dong-won

I. 서론

舍岩鍼法은 각 臟腑의 正邪虛實을 살피고 七情의 浮沈을 파악하여 『難經』에서 언급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¹⁾의 원리와 金木水火土 當更相平의 원리¹⁾에 따라 발명한 經絡(이하 自經)과 치료원리상 五行 관계에 있는 經絡의 치료상 오행관계에 있는 五臟穴을 조합하여 처방하는 침법을 말한다.

그러나 舍岩鍼 筆寫本을 보면 위의 처방 법칙과는 다른 다양한 處方(이하 變方)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난해하여 舍岩鍼法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變方들은 대개 몇 개의 이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의미를 단지 네다섯 개의 穴로 집약한 것을 보면 舍岩鍼法의 精粹는 이런 變方들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와서 정신질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膏粱厚味の 과다섭취, 복잡한 七情상태가 복잡한 사회구조, 사회적 스트레스가 겹쳐져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火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치료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火의 병리를 연구하는 것은 이런 질환의 치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고, 君火方과 相火方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素問·至眞要大論』²⁾의 病機十九條를 보면 火에 의한 것이 5條, 熱에 의한 것이 4條, 그리고 火藏인 心에 의한 것이 1條로 이를 합하면 火熱에 의한 것이 모두 10條이니 이는 19條의 반이 넘는 숫자이다. 그만큼 火熱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舍岩鍼法에서도 이 火熱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火熱門이고 그 밖에 곳곳에 火熱에 관련된 처방들이 나타나있다. 이 火熱에 대한 처방들 안에는 舍岩鍼法의 變方들이 특히 잘 나타나 있고, 그 變方 안에는 舍岩鍼法 전반에 깔려 있는 이론들이 들어 있다. 舍岩鍼法을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黃帝內經』 이래로 諸家의 火熱에 대한 이론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舍岩鍼法의 火熱관련의 처방을 분석한다면 火熱의 이해와 舍岩鍼

法의 수준이 반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논문에 착수하였다.

II. 본론

舍岩鍼法의 火熱門³⁾을 보면 “『素問·至眞要大論』에서 말한 脊癱·暴瘖·狂越·罵詈·驚駭 등은 君火에 속하고, 冒昧·躁擾·疰腫疼酸·氣逆 등은 相火에 속하며, 上衝·禁慄如喪神守·嘔嘔·瘡瘍 등은 隱熱에 속하고, 耳聾·耳鳴·嘔·目昧·暴注 등은 發熱에 속한다. 그러므로 丹溪는 老陽이 動하면 天火가 생기고 少陰이 靜하면 人火가 생기며 熱極하면 地火가 된다고 했는데, 이로써 水(腎水)를 격양시켜 離(心火)를 제압하고 枯木(肝木)에 水氣를 끌어들이어서 熱을 평정해야 한다.”고 하고 처방으로 君火方, 相火方, 壯熱方의 3가지를 내놓았다.

그 각각의 火熱이 구체적으로 主하는 臟腑에 대하여는 “君火者 心火也 相火者 肝火也 壯熱者 小腸熱也 又怒後狂治相火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舍岩鍼法·咽喉門』에는 “胃土過者 腎傷自動相火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³⁾”라 하여 相火와 君火가 動하는 것은 水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으니, 위의 水가 火를 제압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1. 君火方

1) 君火의 생리·병리

心은 동요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神明이 바르게 되고 君火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心이 동요하면 그 본성인 火가 過亢·暴盛하게 되어 다른 臟腑를 손상시킨다.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는 火의 특성상 五臟六腑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肺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火克金), 같은 陽分인 肝木이 그 火를 받아 肝木에 저장된 火가 스스로 肝木을 태워 肝木이 더욱 왕성하게 된다. 腎水 역시 心火로 인해 말라 버려(侮所不

勝) 火를 억제할 힘을 상실하므로 心火는 그 틈을 타서 근원인 木의 助力을 받아 더욱 亢盛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心이 동요하여 心火가 暴盛하려고 하여도 腎水의 제어가 충분하면 안정될 수 있다. 心火가 熾盛한 것은 기본적으로 腎水의 虛弱을 전제로 한다.

이 君火方의 상태는 心火旺하고 肝木實하지만 아직까지 相火가 發動되지는 않고 脾土의 虛弱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병적 상태로, 腎陰虛를 바탕으로 한 心火旺이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症狀】

面赤多喜, 脊癭, 暴瘡, 狂越, 罵詈, 驚駭, 身熱, 目赤, 口渴, 五心煩熱, 小便赤難, 脈洪數(尤見于左寸) 등

2) 君火方の 분석

【方】

丹田 迎, 陰谷, 少海 補, 大敦 少冲 瀉.

【方解】

東垣이 말하기를 心火는 陰火로서 下焦에서 일어나 心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⁵⁾. 丹田은 關元穴로 小腸의 募穴이다. 小腸은 心과 臟腑表裏를 이루고 이 두 臟腑는 서로 火熱을 주고받는다. 또한 丹田은 下焦 元氣의 저장소로서 陰에 기초하고 있다. 이 陰이 허약하게 되면 陰火가 발생하고, 이 陰火가 心으로 올라가 心火를 부추기면 心火가 妄動한다. 따라서 丹田을 刺하여 心火妄動의 根源인 陰火를 억제한다.

陰谷을 補하는 것은 腎中の 眞水を 왕성하게 하여 下焦의 陰을 공고히 함으로써 心中的 水를 도와 心火를 안정시키고³⁾, 木의 母인 水로써 火를 克하여 木을 泄氣시켜 木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이것이 『難經』⁶⁾에서 말한 母能令子虛이다). 心勝格은 腎水を 강하게 하여 心의 水氣를 길러 心火를 제어하는 처방이다.

心勝格의 正方은 陰谷·少海를 補하고 神門·太白을 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變方으로 大敦·少衝을 瀉하였다. 木은 火의 母이자 根原이고, 木은 水로부터 生成의 기운을 받는다. 그런데 君火의 病理는 心火의 熾盛과 더불어 心火로 인해 肝中の 火가 木을 스스로 태워 心火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 것이니,

만일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相火의 병리상태로 이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火의 근원이 되는 木을 제거하는 것이 火源을 소멸시킨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木을 瀉하는 變方을 쓰는 것이다³⁾.

心勝格의 正方인 神門·太白을 瀉하는 방법은 火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益火之原인 木이 自焚하는 것과 火로 인해 왕성해져서 脾胃土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木을 직접 瀉하는 大敦·少衝의 變方보다 그 힘이 떨어지게 된다.

총괄하자면 君火方은 心火의 熾盛으로 肝木까지 焚燒되어 그것이 脾胃土를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心火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므로, 變形으로 木을 바로 瀉함으로써 木의 亢盛으로 인해 脾胃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木의 益火之性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3) 관련문헌

君火方の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문헌을 덧붙였다.

① 『素問·至眞要大論』²⁾

諸熱脊癭 皆屬於火 諸痛癢瘡 皆屬於心 諸禁鼓慄 如喪神守 皆屬於火 諸逆衝上 皆屬於火 諸脹腹大 皆屬於熱 諸躁狂越 皆屬於火 諸病有聲 鼓之如鼓 皆屬於熱 諸病附腫 疼酸驚駭 皆屬於火 諸轉反戾 水液渾濁 皆屬於熱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熱

② 『丹溪心法附餘·火門』⁷⁾

火 陰虛火動 難治 火鬱 當發看 何經 輕者 可降 重者 則從其性 而升之 實火 可瀉 黃連解毒湯之類 虛火可補 小便降火最速 凡氣有餘便是火不足者是氣虛 火急甚重者必緩之 以生甘草 兼瀉兼緩 蓼朮亦可人壯氣實 火盛癲狂者 可用正治 或硝黃冰水之類 人虛火盛狂者 以生薑湯與之若投冰水 正治 立死 有補陰 卽火自降 炒黃柏生地黃之類 凡火盛者不可驟用涼藥必兼溫散 有可發者二 風寒外來者 可發 鬱火可發 …… 劉宗厚曰 火之爲病 其害甚大 其變甚速 其勢甚彰 其死甚暴 何者 蓋能燔灼焚焰 飛走狂越 消鑠於物 莫能禦之 遊行乎三焦 虛實之兩送 曰君火也 猶人火也 曰相火也 猶龍火也 火性不妄動 能不違於道常以稟位聽命 運行造化 生存之機矣 夫人在氣交之中 多動少靜欲不妄動 其可得乎 故凡動者 皆屬火化 火一妄行 元氣受傷 勢不兩立 偏勝則病 移害他經 事非細故 運之極也 病則

死矣 經所謂一水 不勝二火之火 出於天造 君相之外 又有厥陽臟腑之火 根於五志之內 六欲七情 激之 其火隨起 蓋大怒 則火起於肝 醉飽 則火起於胃 房勞 則火起於腎 悲哀動中 則火起於肺 心為君主 自焚則死矣 …… 又考『內經』病機一十九條內 舉屬火者 五諸熱 瘵瘦 皆屬於火之類 而河間又廣其說 火之致病者 甚多 深契『內經』之旨 曰諸病喘嘔 吐酸 暴注下迫 轉筋 小便渾濁 腹脹大 鼓之有聲 如鼓 癰疽瘡疹 瘰癧結核 吐下霍亂 脊鬱腫脹 鼻塞 衄衄 血溢 血泄 淋悶 身熱 惡寒 戰慄 驚惑 悲笑 譫妄 衄衄 血污 此皆少陰君火之熱 乃真心小腸之氣 所為也 若瘵瘦 暴瘡 冒昧 操擾 狂越 罵罵 驚駭 附腫 疼酸 氣逆 衝上 禁慄 如喪神守 嘔嘔瘡瘍喉痺 耳鳴及聾 嘔滿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閏瘦 暴病暴死 此皆少陽相火之熱 乃心包絡三焦之氣 所為也 是皆火之變見 為諸病也 為脈 虛則浮大 實則洪數 藥之所主 各因其屬 君火者 心火也 可以溫服 可以水滅 可以直折 惟黃連之屬 可以制之 相火者 龍火也 不可以水溫 折之 從其性而伏之 惟黃柏之屬 可以降之 …… 若陰微陽強 相火熾盛以乘陰位 曰漸煎熬 為血虛之病 以甘寒之劑 降之 如當歸地黃之屬 若心火亢極 鬱熱內實 為陽強之病 以鹹冷之劑 折之 如大黃 朴硝之屬 若腎水受傷 真陰失守 無根之火 為陰虛之病 以壯水之劑 制之 如生地黃玄麥之屬 若右腎命門火衰 為陽脫之病 以溫熱之劑 濟之 如附子乾薑之屬 若胃虛過食冷物 抑遏陽氣於脾土 為火鬱之病 以升散之劑 發之 如升麻葛根之屬

③ 『脈因證治·熱門』⁸⁾

暴熱病在心肺 積熱病在腎肝

④ 『醫學入門·雜病提綱·外感·火』⁹⁾

火因內外分虛實

外因 邪鬱經絡 積熱臟腑 此為有餘之火 內因 飲食情慾 氣盛似火 此為有餘中不足 陰虛火動 乃不足之火 大要 以脈弦數無力 為虛火 實大有力 為實火

性暴無常主病多

火病人甚暴 變化無常 一動便傷元氣 偏勝移害他經 內經病機十九條 而屬火者五 劉河間推廣 五運為病 屬肝者 諸風之火 屬脾胃者 諸濕痰火 屬心肺者 諸熱實火 屬腎者 諸虛之火 散於各經 浮遊之火 入氣分 無根之火 入血分 消陰伏火 故曰 諸病尋痰火 痰火生異證

實火渴閉熱無間

實火 內外皆熱 口渴 日夜潮熱 大·小便閉

虛熱有間口無何

虛火 潮熱有間 口燥不渴

瀉實補虛升且降 ……

虛火 氣虛火盛 因勞倦傷胃 無力身熱 …… 血虛火動 因傷色慾 午後發熱 …… 飲食鬱火 因內傷生冷及飲食不化 抑遏陽氣於脾土 四肢熱如燎 以升散之劑發之 …… 七情五志火起 宜隨各經調之 大怒火 起於肝 則手掉目眩 …… 醉飽火 起於胃 則痞塞腫滿 …… 悲哀火 起於肺 則氣上賁鬱 …… 房勞火 動於腎 則骨蒸潮熱 …… 心火 輕則煩熱痛痒 …… 重則自焚面青 發躁 脈絕暴死 故曰五志之火 動極不治

總論 虛火可補 實火可瀉 輕者可降 重者從其性而升之 君火正治 可以濕伏 可以水滅 可以直折 相火反治 不可以水濕折 惟從其性而伏之 即如實火發狂 宜三黃 硝黃正治 虛火發狂 先與薑湯 然後補陰 其火自降 凡火盛不可猛用涼藥 必酒炒過 或兼溫散甘緩 又有可發汗者 風寒生冷鬱也

君相民皆靜且和

五行惟火有二 心為君火 一身之主 腎為相火 遊行於身 常寄肝膽胞絡三焦之間 又膀胱為民火 亦屬於腎 此皆天賦不可無者 若五志之火 則由於人 是以內傷火多 外感火少 噫 火不妄動 動由於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⑤ 『醫學入門·臟腑條分·心』⁹⁾

心君臟也 神明居焉

內主血而外應舌 盛則榮髮華面

人身動則血行於諸經 靜則血藏於肝臟 故肝為血海 心乃內連行之 是心主血也。

舌者心之苗 故外應舌 舌和則知五味。

髮者血之苗 血盛則髮潤

心榮色 其華在面。

所惡熱而所喜靜 衰則懶語錯言

心本熱 虛則寒耳。心惡熱 肝惡風 脾惡濕 肺惡寒 腎惡燥。

心靜則安 心動則躁 延年不老 心靜而已。

人年六十 則心氣衰而言多錯忘。

丙丁傷風 癩癩嗜臥脈痿

丙丁日傷於風者 為心風 其狀多汗惡風 唇焦赤 剝皮 甚則言不可快 嗜臥而為癩癩神亂 善怒赫人。

心之風為行痺 五痺以夏遇之 則為脈痺 膝腕樞紐如折 脛筋縱緩 不能任用於地。或疑下體。肝腎所主 孰不知心火內燔 陰上隔陽 下守位 癩腎亦隨火炎而筋脈上逆也。

又心痺則脈不通利 心下鼓滿 喜噫之以出其氣 上氣喘急 噎乾氣逆 則生恐懼。

庚辛 滯氣伏梁縈痛生煩

腎病傳心 心當傳肺 肺秋旺 旺者不受邪 心復欲還腎 腎不肯受 故留結爲續 故知伏梁 以秋庚辛日得之 其續形有似手臂 而在臍畔縈係 伏而不動 如屋之棟梁然 久不愈 令人心煩而悶 或夜眠不安。

熱則火炎 喜笑而口糜 目黃咽瘡 甚則狂渴 無汗流衄

笑者 火之象也。心實則笑 心虛則悲。口糜者 口瘡糜爛也。目黃者 濕熱薰蒸也。咽瘡者 手少陰之正 別入於淵腋兩筋之間 屬於心 上走咽嚥 出於面 合目內眥 此爲四合也。諺語發狂 熱則神昏而亂 渴者火盛 則腎液乾而咽路焦。汗爲心液 熱則無汗 得汗則腎水平而皮潤 火不受剋矣。血乃心主 熱逼上行 虛則爲衄 爲唾 凡熱者 願必先赤 當預防之。

虛則神昏 夢飛而健忘 驚悸不寐 甚則胸腹腰脇痛牽 心實則夢可憂 可驚 可怪之事 豈則魂夢飛揚 氣逆於心 則夢丘山煙火 健忘失記 驚悸不安 心內懊懣不樂 皆心血少也。

胸腹腰脇 相引痛者 手心主厥陰之脈 從胸中出 屬心胞 下兩歷絡三焦 其支別者 循臍出脇 心系下兩絡小腸 故病如是也。

血滯經閉可治

女子不月 多因勞極驚悸 *憂思慮 以致心氣不足 而後血滯不行 不治其血 而通其心可也。

⑥ 『難經·六十九難』¹⁾

經言虛者補之 實者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 何爲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當 先補之 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生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 以經取之

⑦ 『難經·七十五難』¹⁾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2. 相火

1) 相火의 生理·病理

천지 자연은 만물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항상 움직이고 인간은 성장하기 위해 항상 움직임이 있게 마련이니, 이 움직임의 주체는 相火이고 인간에게는 肝과 腎에 내장되어 있다. 相火는 肝腎의 陰의 토대 하에 膽·膀胱·心包·三焦 등에 배분되어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 肝腎의 陰은 相火가 정상범주 내에서 활동하게 해 주는 결정적 요소이다. 丹溪는 이것을 바닷물이 땅(陰)에 부딪쳐야 파도가 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만일 肝腎의 陰分이 부족하게 되어 心火를 통제하지 못하면 相火는 同氣인 心火를 쫓아 상승하려고 한다.

相火는 그 氣勢가 暴急하고 猛烈해서 피해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다. 陰의 제약에서 벗어난 心火는 熾盛하여 肺金을 약하게 하므로 肺金이 肝木을 평정할 수 없어 肝木이 왕성하게 되고(火克金 金不能平木) 오히려 肝木이 肺金을 공격하는 지경이 된다(張仲景은 이를 橫이라 했다¹⁰⁾). 이렇게 왕성해진 肝木은 脾胃를 약화시켜 土氣가 抑鬱·不伸하게 되고 心火와 더불어 自焚한 木과 결합하여 火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脾土가 焦乾하게 된다. 이로 인해 쇠약해진 脾胃土는 肺金을 생할 수 없게 되고 또 위에서와 같이 心火에 의해 肺金이 억제되어, 金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木은 극도로 亢盛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약해져 있던 腎水는 肝과 心의 火로 인해 더욱 약화되고, 이미 약해진 肺는 역시 腎水를 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水와 金과 陰土는 점점 쇠약해지고, 火와 木과 陽土는 더욱 왕성해지는 형국이 된다.

水(☵)는 그 속에 火를 간직하고 있고 火(☲)는 그 속에 眞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水火는 공존하면서 그 본성이 偏向되는 것을 보완한다. 그런데 腎水의 枯竭로 인해 肝과 腎에 내장되어 있던 相火가 妄動하게 되면 無根之火인 이 相火는 丙火之府, 즉 三焦經으로 들어가 전신에 유통되게 된다. 三焦少陽之氣는 즉 胃氣이고 胃氣는 곧 元氣이니¹¹⁾ 相火가 이 경락으로 들어가면 元氣를 상하게 된다. 또 三焦는 水道를 주관하고 經絡循行에서 膀胱에 聯絡되어 있으므로 기능상 膀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膀胱은 腎의 腑이므로 相火가 膀胱으로도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相火는 火多水少로 인한 心實·肝實·腎虛·肺虛·脾虛의 병리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症狀】

善怒, 不欲食, 言益少, 不成一寢, 眼青, 惟獨夫好, 冒昧, 躁擾, 胗腫疼痠, 氣逆, 面赤, 口苦, 口乾, 小腹滿, 小便赤黃不利, 大便難, 精自出, 惡寒發熱異常, 脈洪數(尤見于左寸關 兩尺) 등

2) 相火方の 분석

【方】

中脘 正, 陰谷 大都 補, 支溝 崑崙 瀉.

【方解】

相火는 君火보다 熱의 鬱結이 오래 지속되었을 때나 忿怒가 있는 후 狂症이 나타났을 때의 증상이다. 丹溪가 이르기를 暴熱은 병이 心肺에 있고 積熱은 병이 肝腎에 있다고 하였다. 火가 오래 동안 鬱結되었을 때 中央土가 抑鬱不伸하여 升發하지 못하면 鬱遏된 火가 發散·解散하지 못한다(土氣不升則火亦難發¹²⁾). 『醫學入門·雜病提綱·內傷·積熱』에서 “補中益機何以治熱 孰不知熱因熱用 溫能除熱之理 蓋大熱在上 大寒必伏於內 溫能退寒以助地氣 地氣者在人 乃胃之生氣 使眞氣旺而邪熱自退”라고 하였으니, 火의 기세가 급하고 심각할 때는 강하게 맞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서서히 풀어야하며⁷⁾, 中焦를 溫하게 해야 大熱을 제거할 수 있다⁵⁾. 또한 經에 이르기를 화를 잘 내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말수가 적어지면 이때는 足太陰을 刺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 이는 肝이 盛하여 이로 인해 脾土가 약해졌다는 뜻이다.

이렇듯 相火는 肝木이 왕성해져서 脾胃가 쇠약해진 상태이므로 中脘을 刺하고 足太陰脾經의 火穴이며 自經補穴인 大都를 補하여 溫中緩中하고 益脾하여 脾의 升發力을 증강시킴으로써 鬱結된 火가 쉽게 解散되도록 한다. 臟腑의 五行속성 관계에서 보면 腎水는 肺金의 子이며 肝木의 母이다. 陰谷을 補함으로써 腎의 眞水가 心火를 억제하도록 한다(水勝火). 心火가 억제되면 肺金이 안정되고(子能令母實, 子是 腎, 母는 肺) 火가 克制되므로 肝木은 子인 心火의 泄氣에 의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木의 侮로부터 벗어난 金은 木에 대한 억제력이 살아나 木을 더욱 약하게 한다(母能令子虛, 母는 腎, 子는 肝). 木

이 약해져 健實해진 脾는 다시 肺를 생할 수 있게되므로 肺의 木에 대한 억제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그리고 脾土가 健實해지면서 脾의 升發力이 회복되어 心火의 解散이 용이해진다. 또한 陰谷을 補함으로써 金이 水를 생하기 위해 泄氣하는 것을 막아 金을 강하게 한다(子能令母實). 결국 金은 직접적으로는 두 방향으로 생성을 받고 우회적으로 土의 생성을 받게 된다. 이렇게 陰谷을 補하는 것은 金에 있어서 一舉兩得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는 妙가 있다. 相火의 상태는 肝이 實한 상태이기 때문에 肺를 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腎水를 補하여 心火를 안정시키는 것이 關鍵이 된다.

丹溪가 말하기를 相火는 水濕으로 꺾을 수 없고, 그 성질 자체를 이용하여 끌어 내려 눌러야 한다고 하였다⁷⁾. 東垣은 火와 元氣는 양립할 수 없어 하나가 우세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처진다고 하였다⁵⁾. 또 그는 元氣가 곧 胃氣요 三焦少陽之氣라 하였다. 그래서 丙火之府이며 元氣之府인 三焦經의 火穴인 支溝를 직접 瀉하여 無根之相火를 꺾어 내려 元氣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또한 三焦는 養精神한다고 하였는데 相火가 三焦經으로 들어가면 元氣를 손상시키면서 정신의 충만도 저해하여 譫妄 등의 증상을 유발하므로 支溝를 瀉하여 정신의 安寧을 도모한다.

그리고 膀胱經의 火穴인 崑崙을 瀉하여 이 경락으로 흘러 들어간 相火를 제거함으로써 下焦에 몰린 熱이 狂症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素問·脈解』에 “所謂甚則 狂癲疾者 陽盡在上而 陰氣從下 下虛上實 故 狂癲疾也²⁾”라 하여 太陽經의 病理를 말하였으니 相火로 인한 병증에 崑崙을 瀉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

相火는 君火의 치료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 大都補와 支溝瀉는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勞倦으로 脾를 상하여 열이 날 때 瀉熱을 하는 것이 아니라 補中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舍岩鍼法 勞極門 元氣衰弱 처방(太白 太淵 補, 支溝 然谷 瀉)에서 支溝瀉를 쓰는 것 등이 相火方에서와 같은 원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君火方과 相火方에서 제일 중요한 穴은 陰谷穴이니, 이는 心火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入門에 이르기를 火가 動하는 것은 心에 달려 있고 心이 안정되는 것은 心中의 水氣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⁹⁾. 心의 水氣는 腎의 眞水로부터 滋養되므로 陰谷은 心을 안정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相火方에서의 陰谷補는 肺金을 강하게하여 實한 肝木을 평정하도록 하므로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丹溪의 제자인 王履는 『醫經溯洄集』에 이르길 火를 치료함에 瀉火를 목적으로 苦寒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비록 火를 제거할 순 있지만 火의 妄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腎의 眞陰을 생성하지는 못하므로 바른 治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補水가 瀉火에 우선한다는 것은 명심할 점이다.

3) 관련문헌

相火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문헌을 덧붙였다.

① 『格致餘論·相火論』¹⁴⁾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見於天者 出於龍雷則木之氣 出於海則水之氣也 具於人者 寄於肝腎二部 肝屬木 而腎屬水也 膽者 肝之腑 膀胱者 腎之腑 心包絡者 腎之配 三焦 以焦言 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 肝腎之陰 悉具相火人而同乎天也 或曰 相火天人之所同 何東垣 以爲元氣之賊 又曰火與元氣 不兩立一勝則一負 然則如之何而可以使之無勝負也 曰 周子曰 神發知矣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 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卽內經五火也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 上扇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 君火之氣 經以暑與濕 言之 相火之氣 經以火言之 蓋表其暴悍酷烈 有甚於君火者也 故曰 相火元氣之賊 …… 攷諸內經 少陽病 爲瘧癘 太陽病 時眩仆 少陰病 督 暴痞 鬱冒 不知人 非諸熱督癘之屬火乎 少陽病 惡寒鼓慄 膽病 振寒 少陰病 洒淅惡寒振慄 厥陰病 洒淅振寒 非諸禁鼓慄 如喪神守之屬火乎

少陽病 嘔逆 厥氣上行 膀胱病 衝頭痛 太陽病 厥氣上衝 胸小腹 控牽引腰脊 上衝心 少陰病 氣上衝胸 嘔逆 非諸逆衝上之屬火乎 少陽病 譫妄 太陽病 譫妄 膀胱病 狂顛 非諸躁狂越之屬火乎

少陽病 附腫善驚 少陰病 督熱以酸 附腫 不能久立 非諸病附腫疼痠 驚駭之屬火乎

② 陽有餘陰不足論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何以言之?

③ 醫貫¹⁵⁾

人火者 所謂燎原之火也 遇草而熱 得木而燔 可以

濕伏 可以水滅 可以直折 黃連之屬可以制之 相火者 龍火也 雷火也 得濕則燦 遇水則燔 不知其性 而以水折之 以濕攻之 適足以光焰燭天 物窮方止矣 識其性者 以火逐之 則焰灼自消 炎光撲滅

龍雷之火 每當濃陰驟雨之時 火焰愈熾 或燒毀房室 或擊碎木石 其勢誠不可抗 惟太陽一照 火自消滅 此得水則熾 得火則滅之一驗也

④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⁵⁾

若飲食失節 寒溫不適 則脾胃乃傷 喜怒憂恐 損耗元氣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於下焦 其系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 故脾證時得則氣高而喘 身熱而煩 其脈洪大而頭痛 或渴不止 其皮膚不任風寒 而生寒熱 蓋陰火相衝 則氣高 喘而煩熱 爲頭痛 爲渴而脈洪 脾胃之氣下流 使榮氣不得升浮 是春生之令不行 則無陽以護其營衛 則不任風寒 乃生寒熱 此皆脾胃之氣不足所致也 然而 與外感風寒 所得之證 頗同而實異 內傷脾胃 乃傷其氣 外感風寒 乃傷其形 傷其外爲有餘 有餘者瀉之 傷其內爲不足 不足者補之 內傷不足之病 苟誤認外感有餘之病 而反瀉之 則虛其虛也 實實虛虛 如此死者 醫殺之耳 然則奈何 惟當以辛甘溫之劑 補其中而升其陽 甘寒以瀉其火則愈矣 經曰 勞者溫之 損者益之 又云 溼能除大熱 大忌苦寒之藥 損其脾胃 脾胃之證 始得則熱中 今立治始得之證 補中益氣湯

⑤ 『醫學入門·臟腑條分·膀胱』⁹⁾

膀胱熱結腹滿而胞塞 甚則狂發 熱結下焦 則小腹苦滿 難於俯仰 胞轉閉塞 不得小便 令人發狂.

⑥ 『醫學入門·臟腑條分·命門』⁹⁾

命門下寄腎右 而系系曲透膀胱之間 上爲心胞 而膈膜橫連脂漫之外 心胞 卽命門 其經手厥陰 其繫三焦 其臟心胞絡 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 豎斜膈膜之下 與橫膜相粘 其處黃脂漫包者心也 其漫脂之外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胞絡也.

配左腎以藏眞精 男女陰陽攸分

命門爲配成之官 左腎收血化精 運入藏諸命門 男以此而藏精 女以此而系胞胎. 男子以氣爲主 坎水用事 故蒸氣爲精而色白 如帶火者 精亦能紅. 女子以血爲主

離火用事 故血盈為經而色紅 如挾痰氣者 經亦能白。女人屬陰 陰極則必自下而上衝 故乳房大而陰戶縮也。男子屬陽 陽極則必自上而垂下 故陰物垂而乳頭縮也。蓋陽無形 陰有質 男子內陽而外陰 女人內陰而外陽 男子背屬陽而腹屬陰 女人腹屬陽而背屬陰。又男子督脈主事 自背尾閭行至斷交穴止 故血盛者感陽氣而髭鬚生。女子任脈主事 自小腹上行至咽喉而止 故不上與陽合而無鬚。宦官去勢 亦無鬚 一理也。

相君火以繫元氣 疾病死生是賴

相火之臟 元氣繫焉。凡病雖危 命脈有神者生 命脈無神者死。

風則肘臂攣急 腋下腫紅

心胞支脈循胸出脇 下腋三寸 上抵腋下 下循臍內行太陰少陰之間 入肘中下臂 行兩筋之間。

氣則胸膈支結 脇不舒泰

心胞脈起於胸中下膈。循絡三焦 故病有胸病及息噴者。

熱逼五心煩 而目赤善笑 溲便亦難

火盛故也。

虛乏四體軟 而頭旋耳痛 精力不銳

火衰則土不運 而四體若無骨然。頭旋者 命門帶系上透泥丸 陽虛則頭旋也。耳痛者 腎竅於耳 虛氣壅則痛壅塞則聾也。精力不銳者 交感精來不快 平時無力不足以息。

血衰面黃 而心下崩且煩

面色紫光者 腎無苦也 色黃黑者 腎衰也。經曰 悲哀太甚則心下崩 數洩血也。蓋悲哀則心系 急肺布葉舉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胞絡絕而陽氣內鼓動 發則心下崩數洩血也。心下崩 謂心胞內崩而下血也。

冷極陰痿 而肢體厥且痺。

腎氣冷極 前陰痿弱不舉 病則四肢發厥如冰 骨痛為冷痺。

抑又疑 左右受病 同歸於膀胱

小便清利 脈沈而遲 是冷氣歸腎;小便赤澀 脈沈而數 是熱氣歸命門。是命門與腎脈同者 謂其所受病同歸於膀胱一腑也。

冬夏司天 兩分於水火。

所以左屬水 右屬火者 左尺膀胱停瀦腎水 右尺三焦腐熟穀食。俗呼水便曰水 大便火 水火之義較然。況六氣司天 左為寒水 司冬為寒;右為相火 司夏為暑。

蓋其同者 有形之質 均屬乎水 其異者 無形之火 不可乎寒。司天既有寒暑之異 在人豈無水火之分

腎合膀胱 左尺脈純乎水 命合三焦 右尺脈純乎火。

似同而實異者 陰陽之所而為妙也 宜鄭不宜動者 左

右之所而相同也。

凡病莫非火之所為 火盛則熱怯虛勞 火衰則陽虛氣弱。左右之脈皆沈 診而貴乎沈滑 惟相火司令 則滑而帶浮。非其時而數且大者 皆謂火動。

叔和脈不立部 同斷乎證 丹溪圖不盡意 妙存乎心

丹溪脈圖 始補命門 胞絡。

⑦『醫學入門·臟腑條分·三焦』⁹⁾

三焦如霧如瀉如瀆 雖有名而無形;主氣主食主便 雖無形而有用。

發為無根之相火 寒熱異常

三焦為丙火之腑 故其發也 則為無根之相火 遊行諸經 令人惡寒發熱異常

位寄臍中與血海 男女相共

臍中即上焦 血海即下焦 男女均有此氣海 均有此血海 又名血室 乃榮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處 但男子則運而行之 無積而不滿;女人則停而止之 有積而溢下為月經

募在石門 貞元 會合以始終

石門 在臍下二寸 為三焦之募 諸氣之所會聚 聚而復分於十二經 與手少陽厥陰相為表裏 故曰 為元氣之始終也

腑在氣衝 水穀資胃而傳迭

升中清 降下濁 造化出納無窮

胃中濁氣 下降而為溲便 清氣 上升而為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必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養精神 柔筋骨 襟懷喜氣若烘

粹然清和之氣 上入中焦 則佐土德 翁受五穀 變化精微 內養精神 外柔筋骨 中焦既治 其氣上烘 入於臍中 而可入內 標懷開豁 喜樂由生

虛則引氣於肺 而中寒 痞脹 甚則溺窘耳鳴

手少陽支脈從耳入耳中 經曰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窘急 溢則水流 即為脹候耳鳴者 手少陽支脈 從耳後入耳中也

熱則上結於心 而胸中煩滿 甚則口渴咽腫。

手少陽脈從臍中出缺盆 上項系耳後 直上出耳上角 以屈下頰至頤。

⑧『醫經精義』

其根源 實出于腎系 腎系即命門也 命門為相火之根 三焦根于命門 故司相火而屬於腎 夫腎具水火 合三焦者 是相火所合也

三焦卽人身膜油 連腸胃及膀胱 食入于胃 由腸而下 飲水入胃 則胃之四面 均有微管 將水吸出 散走膈膜 此膈膜卽三焦也 水由上焦 歷肝膈 透腎系 入下焦油膜 以達膀胱 故“三焦者 中瀆之腑 水道出焉”. “屬膀胱者” 謂三焦與膀胱相聯屬也.

⑨ 『內外傷辯惑論·卷下·辯內傷飲食用藥所宜所禁』¹¹⁾

左傳云 履端於始 序則不愆 人之飲食入胃 營氣上行 卽少陽甲膽之氣也 其手少陽三焦經 人之元氣也 手足經同法 便是少陽元氣生發也 胃氣 穀氣 元氣 甲膽上升之氣 一也 異名雖多 止是胃氣上升者也

⑩ 『靈樞·雜病』¹³⁾

喜怒而不欲食 言益小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

3. 壯熱

1) 壯熱

壯熱은 ‘小腸熱’이라 하였다. 心の 熱이 小腸으로 轉移된 상태에 胃腸의 積滯까지 더하여져 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醫學入門·虛類·發熱』에서는 “挾痰 挾積尤難淨”이라 하여 “積病最能發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熱이 陰液을 소모시키므로 血虛한 상태를 유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神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妄言未見 등의 邪祟와 유사한 증상이 출현하게 된다.

朱丹溪의 『格致餘論·虛病痰病有似邪祟論』에서는 “血氣가 虧損된데다 痰이 中焦에 응결되어 中焦의 升降작용을 막아 운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十二官이 모두 그 기능을 상실하여 視聽言動이 모두 虛妄하게 되니 이것을 邪祟로 치료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였다. 朱丹溪의 치험례에 보면 死祟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去痰補虛清熱하여 치료하였다. 또 『格致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에서는 『內經』을 인용하여 惡寒戰慄은 熱에 속하며 寒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古人들은 그런 戰慄증상에 大承氣湯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들며 惡寒戰慄이 熱病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內經』에 이르길 陰虛하면 發熱한다고 하여 이 熱은 陰을 補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으로 실제로 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壯熱은 외관상 熱狀과 血證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하여 癩疹·搔痒 등의 피부질환은 소아에게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난다.

【症狀】

悲哭不樂, 嘔湧溢食不下, 躁憂, 疼痠 (『舍岩鍼灸正傳』), 寒熱, 蹠攣, 痺痛, 癩疹, 搔痒, 好忘, 好狂, 驚惕, 迷悶, 痞塊, 疼痛, 癰閉, 遺尿 (『醫學入門·雜病提綱·內傷·血』)

2) 壯熱方の 분석

【方】

中脘 正, 臨泣 後谿 補, 三里 衝陽 瀉

【方解】

心臟은 血을 주관하고 小腸은 津液을 주관하는데¹³⁾ 熱에 의해 血과 津液이 消盡되면서 血虛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小腸正格의 臨泣·後谿를 補하여 血液을 補充하고 熱을 배출하며, 三里·衝陽을 瀉하여 血을 生하는 胃腸의 積滯를 제거함으로써 熱의 강도의 커짐을 막아 血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中脘을 刺하는 것도 積滯를 풀고 痰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醫學入門·雜病提綱·內傷·鬱』에 보면 “氣鬱則生 濕하고, 濕鬱則成熱하며, 熱鬱則成痰하고, 痰鬱則血 不行하며, 血鬱則食不消而成癥痞한다” 하였다. 熱局인 胃의 土穴인 三里를 瀉함으로써 濕·熱·痰을 제거하고, 胃의 原穴인 衝陽을 瀉함으로써 胃經의 熱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胃經의 火穴인 解谿를 쓰지 않고 衝陽을 쓴 이유는 穴性 자체에서 解谿보다 衝陽이 陽明胃의 熱을 제거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醫學入門』의 穴性을 비교해 보면 解谿는 主頭風, 日眩, 日赤, 面腫, 口痛, 齒痛, 舌腫, 腹腫, 霍亂, 轉筋, 膝股腫, 疔痲, 癩疾, 瘡疾한다 하였고, 衝陽은 主面腫, 口眼歪斜, 齒齲痛, 腹大 不食, 足痿及熱病汗不出, 寒戰, 發狂, 瘡疾한다고 하였다. 또 『銅人鍼灸腧穴圖經』이나 『鍼灸聚英發揮』 등을 살펴보면 衝陽이 解谿보다 熱病을 치료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3) 참고문헌

壯熱方の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덧붙였다.

① 『醫學入門·虛類·發熱』⁹⁾

發熱原無表裏證明是內傷虛損病

外感發熱 人迎緊盛 隨表裏見證 汗下卽解 惟內傷

虛熱 經久不解 無表裏二證 雖食積類傷寒 初證 右脈氣口緊盛 身節不痛爲異。

勞役力倦慾昏神

生冷鬱遏四肢甚

內傷生冷 鬱遏陽氣及脾虛伏火 只手足心熱 肌膚不甚熱 自汗不食者 火鬱湯

晝熱口淡是陽虛

夜熱晝輕陰弱定

陰陽兩虛熱無時

抑論肥人及脈弦大無力者 氣虛於血 宜甘溫 補氣氣旺則能生血 若瘦人及脈弦帶澹者 血虛於氣 止宜苦寒爲主 佐以甘溫 若氣血平補 依舊氣旺而陰愈消矣 凡虛熱 皆因精神外馳 嗜慾無厭 陰氣耗散 陽無所附 遂至浮散肌表而發熱 實非有熱也

骨蒸傳變須防命

骨熱因氣虛不能化血 血乾則火自沸騰 肉如針刺 骨熱煩疼 或五心俱熱 或兩肋如火 或子午相應 或晝微惡寒 而夜反大熱 雖腎經所主 傳變不常 蒸上則見喘咳痰血 唇焦舌黑 耳鳴目眩等證 蒸下則見遺精 淋濁 泄瀉 腰疼 脚酸 陰物自強等證 蒸中則見腹脹 肋痛 四肢倦怠等證

虛煩內煩不得眠

挾痰挾積尤難淨

…… 濕熱甚者 皮枯肢疼 唇燥面赤 痰嗽 飲食少味者 宜量體吐出痰涎 然後服清熱化痰開鬱之藥 …… 積病最能發熱 多夜分 …… 凡發熱人 極忌飲酒

② 『格致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¹⁴⁾

經曰惡寒戰慄 皆屬於熱 又曰 禁慄 如喪神守 皆屬於火. 惡寒者 雖當炎月 若遇風霜 重綿在身 自覺凜凜戰慄 禁慄 動搖之貌 如喪神守 惡寒之甚. 原病式曰 病熱甚而反覺自冷 此爲病熱 實非寒也.

或曰 往往見有得熱藥而少愈者 何也. 予曰 病熱之人 其氣炎上 鬱爲痰飲 抑遏清道 陰氣不升 病熱尤甚. 積痰得熱 亦爲暫退 熱勢助邪 其病益甚. 或曰 寒勢如此 誰敢以寒涼與之 非殺之而何. 予曰 古人 遇戰慄之證 有以大承氣 下燥糞而愈者 惡寒戰慄 明是熱證. 但有虛實之分耳. 經曰 陰虛則發熱 夫陽在外 爲陰之衛 陰在內 爲陽之守. 精神外馳 嗜慾無節 陰氣耗散 陽無所附 遂致浮散於肌表之間 而惡熱也. 實非有熱 當作陰虛 治之而用補養之法 可也.

或曰 惡寒非寒 宜用寒藥 惡熱非熱 宜用補藥 甚駭耳目 明示我之法可乎.

III. 결 론

『黃帝內經』 이래로 諸家の 火熱에 대한 이론을 근간으로 舍岩鍼法の 火熱門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火는 인체 내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과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체내에서 생겨나는 火가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火는 나머지 木·土·金·水에 강하고 빠르게 파급되는데 그 편차의 조정은 水가 핵심이다.
2. 火病은 心和 肝에서 시작되고 腎과 肺가 치료의 중심이 된다.
3. 舍岩鍼法の 火熱門은 朱丹溪의 '陽常有餘陰常不足論'과 中焦인 '脾胃論'을 주장한 李東垣의 이론이 결합하여 相火方을 創方되었고, 그 精粹가 이 相火方에 들어 있다.
4. 朱丹溪의 痰·熱에 대한 관점은 壯熱方을 創方하는데 기여하였다. 虛熱이 積滯와 어우러져 痰을 형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熱症과 정신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되는 등 外感의 火熱病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四時針法에서는 이를 해결할 실천적 방법으로 처방들이 제시해 주고 있다. 향후 약물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비약물요법인 침술은 대단히 유효한 치료수단이 될 것이다.

IV. 참고문헌

1.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20, 12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184, 304.
3. 金達鎬.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 부산 : 소강. 2002 : 60, 218.
4. 정호영. 사암침구정전. 대구 : 석림출판사. 2001 : 39.
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 5기 졸업준비위원회.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 대성출판사. 1992 : 87.

6. 滑壽.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92-94.
7. 朱震亨.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 대성출판사. 1993 : 369-370.
8. 朱丹溪. 脈因證治. 上海 :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4 : 40.
9. 李梴. 原本 編註醫學入門. 서울 : 대성출판사. 1995 : 93-95, 102-104, 354, 403-404.
10. 채인식. 傷寒論譯釋. 서울 : 고문사. 1993 : 91.
1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國譯 內外傷辯惑論·蘭室秘藏. 서울 : 대성출판사. 1995 : 53-54.
12. 陳士鏞. 『辨證錄·遍身骨痛門』.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所. 1985 : 81, 151.
1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譯釋丹溪醫論. 서울 : 대성출판사. 1993 : 116-120.
15. 趙獻可. 醫貫. 北京 : 인민위생출판사. 1982 : 56-57.